



## 제241차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월례연구발표회

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15:00~17:00

장소 : ZOOM 화상회의 (아이디: 853 2533 9014 패스워드: 0528)

**15:00~15:40 / 코로나19와 사회적 생명(孝)**

조정현 (법현, 둥근마음보금자리)



**15:40~16:20 / 대학생이 경험하는 상담에서의  
변화과정 및 대학상담의 기능과 역할**

이정인 (서울영화초등학교)



**16:20~17:00 / 종합토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코로나19 시대와 사회적 생명(효:孝)

조정현(법현)  
한울안 등근마음보금자리

## I. 들어가는 말

본 발표는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거리두기로 야기된 가족 및 이웃과의 단절을 사회적 생명, 즉 효의 측면에서 사회적효의 현실성을 도출하고 사회적 효의 현실적 정착이 도래되었음을 밝히기위한 연구이다.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고유의 전통문화 가운데 효문화가 중요한 가치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효(孝)란 사람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많은 논자들이 효(孝)라는 한자(漢字)를 젊은이가 노인을 섬기고 모시는 형태의 글자로만 풀이하고 만다.

내용인즉 부모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의 품안에서 효가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은 효의 정신을 각자의 심성에서 발현하여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 세계로 확장하여 실천하는 것이 현대 사회적 효의 큰 틀이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생명으로 귀결되며 그 실천주체는 사회적 가족으로 비롯된다. 한편, 사회적 효란 사회적 가족을 중심으로 과거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적인 효를 복지 시설과 사회 및 공공 기관 중심의 효로 확장 시킨 개념이다.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이 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라면 사회적 효는 그것이 일회성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지탱하게 하는 절대적 힘이다.

또한 그 지속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사회적 생명을 영속화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족이 주축이 된 사회적 효의 실천과 정착은 개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영속시키며 한국 사회와 세계의 당면문제를 극복하고 코로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효를 바탕으로 고령의 어르신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이 OECD국가 중에서 가

장 모범적으로 회자되고 있어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한편 사회적 효의 주밀한 실천이 어느 때 보다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것은 사회적 생명을 보다 튼실히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자는 우리의 전통 유산이며 고유의 미덕인 효를 한국 사회사업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효와 접목시켜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타인의 가족이라도 내 가족처럼 모시고 보호해야 하는 현대 사회적 생명인, 효에 대하여 아래의 순서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코로나19 시대의 진단과 역설

코로나 시대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낸 가족들은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다. 어르신과 기저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의 대면면회가 금지·제한되면서다. 인지능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요양시설 비대면 면회는 유리나 비닐 벽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로 대화해야 한다. 인프라도 열악하다. 청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은 가족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다. 10분 남짓 주어진 면회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방역지침상 접촉이 불가능해 가족들은 그리운 부모를 눈앞에 두고도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헤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가족들을 위해 비대면 면회 전용공간인 ‘가족의 거실’을 개발했다. 가족의 거실은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곳에서 면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약 15㎡(4.5평) 면적의 이동식 목조주택으로 지어 요양시설 외부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면회실에선 허용되지 않던 가족의 손을 잡는 일도 가능하다.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에 사용되는 방역 글러브를 설치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비접촉 면회 방식이다. 어르신의 작은 목소리도 선명하게 잡아내는 최첨단 음향시스템도 설치해 청력이 약한 어르신도 유리창 너머 가족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가족의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볼 수 있고, 해외에 살거나 면회 인원 제한 때문에 미처 오지 못한 다른 가족과의 영상통화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족의 거실’을 시립노인요양시설인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 시범 설치하고 5월 첫째 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디자인 매뉴얼을 오픈소스로 무상 개방한다.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는 ‘가족의 거실’ 도입과 함께 당초 주말에만 이뤄졌던 면회를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한다. 선착순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sup>1)</sup>

---

1)국민일보(2021년 5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은 물론 모든 인연들과의 단절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자신의 부모와 친지들을 만나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연들 각자 각자의 그리움을 응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인연관계의 소중함을 알게하면서 이기주의로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 섰다. 유럽인구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14세기 흑사병은 중세 봉건 경제를 끝냈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과 르네상스의 시대를 역사의 무대로 소환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비대면(언택트) 시대를 불렀고, 여행과 이주를 중단시켰다. 생산과 수요의 동시 붕괴로 급속한 자동화와 ‘일자리 없는 경제회복’의 암울한 미래가 예고되고 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인류는 생존이 걸린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이 초유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지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문명사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인류가 주인인 세상에 바이러스가 침입한 줄로 알았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200만 년, 바이러스는 30억 년이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대선배인 셈이다. 그런데 인간이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은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하고 마구 개발하다 보니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줄었다. 바이러스의 영토를 파괴 한 셈이다.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숙주를 인간으로 바꿨고, 이 과정에서 치명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앙은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는 인간이 생태계를 무시한 데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씀이 맞다. 요즘 인도 편자브 사람들은 150킬로미터 떨어진 히말라야 설산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세상이 잠시 멈춤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운행이 중단되자 공기가 맑아졌던 것이다.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이 자연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자 자연이 마음을 열고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다.<sup>2)</sup>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이전의 다른 바이러스와는 달리 무증상 감염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대에 따라 전혀 다른 질병처럼 여겨질 만큼 차별적인 치명률을 보이며,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퍼뜨릴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를 공격해 왔다는 사실도 알았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이해했다. 정확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2) 홍석현, 『코로나19 위기·대응·미래』 p.13.

목표로 하는 ‘치료제’ 는 아직 없지만, ‘치료법’ 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결국은 사회의 면역력과 바이러스의 공격력이 충돌할 때, 그 균형점이 어디로 기울 것인가가 관건이다. 결국,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바이러스 대유행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민주시민 의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sup>3)</sup> 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인류는 과잉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준 악역향이 얼마나 컸는지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질주하는 탐욕의 열차에서 내려와 자연과 공존하려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리이타는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더불어 잘 사는 지혜이다. 다른 존재를 배려하고, 이해가 충돌할 때는 내가 손해보고 물러서겠다는 자세는 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연과 인간은 물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윈윈(win-win)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리이타적 행위가 모두의 생존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응변하고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현생 인류는 종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르고 이동한다.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 대륙이 코로나19를 이겨내야 감염병 대유행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그런데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라는 지구적 방역협력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 가고 있다” 고 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글로벌 연대에 나서고 WHO를 재정비해야 한다. 방역선진국인 한국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방역시스템 구축을 주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압도적인 공멸 위협 앞에서 서로를 향한 각국의 분노는 사소한 것이다. 지구촌은 지금 즉시 ‘사격중지’ (Cease fire!)를 선언해야 한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됐기 때문이다. 인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기후재앙에 의해서도 멸종 할 수 있다.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학대를 중지해야 한다. 한국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가동 중이고, ‘기후악당’ 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경기부양책을 펼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녹색경기부양(Green recovery)을 하자고 제의했다.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실패를 딛고 일어나 방역에 성공한 모범 국가이다. 진단(Test)·추적(Trace)·치료(Treat)라는 ‘3T’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미래학자인 4)짐 데이터 교수는 “세계의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 모델

3) 이준호, 앞의 책, p.242.

4) 짐 데이터 교수는 그 외에도 한국사회에 주문한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한국인들이 모방자로

로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보편적 가치로 승격시키는 밀도 있는 의미 규정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성취가 신기루처럼 사라 질 수 있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 관군이 외적에게 패퇴하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들의 희생적 공동체 의식은 우리의 역사적 유산이다.

인간의 개별성에 가치를 두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독특한 기질이 우리 DNA속에 각인돼 있다. 이런 유산을 압축적으로 정리할 인문적 언어가 필요하다.<sup>5)</sup> 코로나19는 생명과 가정 및 지구촌을 살리고 우주를 살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인간으로 하여금 바쁜 일상에서 멈추고 생각하게 하였으며 또한, 지난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

그러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모든 생명이 공존해야 한다는 생명공존의 가치를 축적해 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극복 방안의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점에서 각박한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재설계 할 수 있는 “사회적 채찍”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수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 삶의 변화는 코로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칫하여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인류가 소멸할 수 있는 위기에서 코로나19는 인류에 대한 자연의 최후 경고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 기회에 세계가 하나가 되어 인류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의 변화들이 바로 코로나19시대의 역설이라고 논자는 생각한다.

### Ⅲ. 사회적 생명과 사회적 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서로가 지켜주는 일이다.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은 사회적 생명인 효의 시작이다. 현대사회의 효는 사회적 효이다. 사회적 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의 형편상 만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는 부모·형제·자매를 사회적 가족들이 모시고 섬기는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효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발생하는 가족과의

---

서의 발전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리더자로서의 인류문명사적 발전을 추구하라는 주문이다.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효를 그 대표적인 문화적 가치로써 재기하기도 했다.(KAIST 미래전략대학원 자료)

5) 홍석현, 『코로나19 위기·대응·미래』, pp.14~17.

단절을 이웃(타인의 가족)을 위해 섬기고 모시는 사회적 가족이 정성으로 연결해 준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고 있지만 사회적 가족이 실천하는 사회적 효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다행한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효로 거듭 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노인 관련 시설과 병원,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그 본의를 정착 시키기도 전에 경쟁과 시장논리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할 때 효(孝)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개인의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노후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효라는 큰 틀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효의 실천은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모심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비록 장기요양보험 제도하의 고령사회 문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의 근본 뿌리인 도덕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지만 사회적 효는 그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고 본다. 따라서 논자는 시대적 요청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사회복지의 본의가 살아나고 어르신들의 만족과 행복감을 높이려면 사회적 효의 의미가 살아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사회적 효의 주체인 사회적 가족(신가족, 새 가족)<sup>6)</sup>의 구성원들과의 연계와 공감대 형성으로 진정한 효의 실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부모나 어르신을 모시는 문제가 가족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다. 부모나 어르신을 모시는 것을 종래에는 가족적 효라고 하였다면 요즘은 사회적 효라고 한다. 부모나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가족 개념에서 사회와 국가의 개념으로 확장, 이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급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족 개념의 효를 사회와 국가 개념의 효로 정착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현대 국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와 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부양과 교육비 부담 등으로 자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노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즉, 노화나 노인성 질환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무자력한 자(사람)에 대하여 신체

6) 입주자의 가족들과 시설의 임직원들은 시대적 상황이 맺어 준 새로운 가족(신가족)이다. 논자는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가 신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가족을 '사회적 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족은 혈연을 초월한 현대사회의 신가족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IV.사회적 효와 사회적 가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됨).

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자살 예방과 함께 웰다잉의 문제도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효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라 본다.

#### IV. 사회적 효와 사회적 가족(신가족)

앞서 밝혔듯이 사회적 효란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과거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적인 효를 복지 시설과 사회 및 공공 기관 중심의 효로 확장 시킨 개념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큰 틀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야기하고 있다. 부모를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입소시켜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표방하는 사회적 효에 걸맞는 사회적 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노인 시설의 관리자나 직원들에게는 보호자들의 이러한 패륜적 행위를 바꾸어야 할 역할과 책임도 수반된다고 본다.

더불어 입주자의 가족들과 시설의 임직원들은 시대적 상황이 맺어 준 새로운 가족(신가족)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요구된다. 논자는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가 신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가족을 사회적 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족은 혈연을 초월한 신가족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사회적 효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노인들의 안전사고 문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연로한 부모가 부주의로 낙상해서 사망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를 모신 형제 자매에 대하여 과실치사라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시설에서는 이러한 일이 법적인 분쟁으로 자주 대두되고 있다. 실제 가족들이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과 시설이 희생과 헌신으로 그 의무를 대신해 줘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법적인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가족이 혈연적 가족보다 부모를 모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희생과 정성이 더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거나 법적으로 해결하려하는 것 자체가 효의 본의와 섬김의 본질을 저버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를 모심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돈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 때문에 케어 당사자들이 조마조마해야 하는 것은 섬김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들에게는 자타가 공인하는 효에 관한 유전자적 전통이 있다. 부모 앞에서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모가 눈치 채지 않도록 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야 말로 효의 기본이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는 것도 가능한 한 삼가하고 살아온 내력이 우리들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효를 내세우면서 생명의 가치를 돈과 흥정하려하고 급기야는 법정으로까지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논자는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는 사회적 가족 또는 신가족(새 가족, 새로운 가족)<sup>7)</sup>이며 그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효와 가족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사회 저변에 확장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친자녀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모시지 못하는 수십만의 어르신들을 사회적 가족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효의 궁극적 정착을 위해서 사회적 가족 개념의 확산과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가족 개념의 정착은 현대판 고려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류가 한 가족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 V. 효의 본질 및 사회적 생명과 몸(신체:身體)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고유의 전통문화 가운데 효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며, 그것은 우리의 전 생애와 함께하고 있는 절대적 가치라 할 수 있다. ‘효(孝)’란 사람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어 대사회적으로 확대된 삶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사람의 도리와 행실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식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는 가운데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 자녀에게 절대적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를 죽음에 무릅쓰고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와 공경의 절대적 존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명의 창조와 사랑, 자비와 인고를 통한 부모의 무한한 헌신과 희생에서 효(孝)는 시작되었다.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삶을 흠모하며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인식(認

---

7) 제가 요양원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르신 자녀들과의 만남입니다. ...중략... 자녀분들의 몽글한 마음이 모여져 내 마음속으로 전달되면서 마치 우리가 어르신으로 인해 맺어진 또 다른 가족인 마냥 정겨워지고, 나와 그 자녀분이 두세 걸음은 앞으로 다가와 얘기하고 있는 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핏줄로는 더 가까운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베풀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곳에서 탄생한 요양원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충실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족한 내 마음을 위로합니다. 물론, 요양원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나의 부모님과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각별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識)의 몸부림과 함께 각성(覺醒)의 눈물을 쏟아낸다. 이렇듯 생명의 근원인 부모의 무한 자비(無限慈悲)에 대한 자식들의 깨달음과 보은의 눈물이 효(孝)이다. 많은 논자들이 효(孝)라는 한자(漢字)를 젊은이가 노인을 섬기고 모시는 형태의 글자로만 풀이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가 효의 근원이며 부모의 한없는 사랑의 품에서 효가 발현되었음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위와 같은 효의 깊은 정신을 각자의 심성에서 발현하여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 세계로 널리 확장하여 실천하는 것이 ‘사회적 효’의 큰 틀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다. 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는데 우리는 고령화사회를 시작으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 부양과 무자력한 노인의 보호 문제가 갈수록 직계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족’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가면서 어르신들의 고립, 빈곤, 우울, 자살률의 증가와 학대 등 노인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sup>8)</sup>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현실은 국가가 이른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가족을 중심으로 효의 사회적 실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14년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고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사전(字典)이며 중국 후한의 학자인 허신(許慎)이 펴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효(孝)는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는 형태의 한자로 ‘노(老)’자의 축약된 일부와 자녀의 ‘자(子)’가 어우러져 자식이 노인을 모시는 모습으로 풀이되어 있다. 즉 ‘효(孝)’는 부모를 잘 모신다는 내용<sup>9)</sup>으로 풀이한다. 또한 ‘효(孝)’라는 한자는 회의문자(會意文字)로 자식이 노인을 업어 모시는 형태의 글자로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내용을 숙고해보면 효(孝)자는 연장자 또는 부모가 자력이 없는 자식(子<sup>10)</sup>:어린이)과 아랫사람을 자타불이의 자비와 헌신으로 한없이 보듬는 근원적 해설명과 이해가 우선해야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자녀나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부모나 어른들의 헌신적이고 자비로운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효에는 부모의 무한한 박애와 은혜, 헌신적 삶을 배워가려는 자녀의 사람으로서의 각오된 행실이 담보되어 있다.

8) RI-Korea전북위원회, 2019RI-Korea재활심포지엄 『전북지역 커뮤니티케어 현황과제』, 전북장애인재활협회장애인재활센터&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 전북지회, 2019, p.24.

9)『說文解字』: 孝, 善事父母者, 從老省, 從子, 子承老也.

10) 자(子)는 어린아이가 포대기 안에 있는 모양을 본떴으며 남자와 여자를 모두 일컫는다(이충구, 『한자부수해설』, 전통문화연구회, 2000, pp.66-67.).

그래서 예로부터 유교(儒敎)에서는 효(孝)를 모든 행실의 근본(百行之本)이라 하였고 공자(公子)는 효를 덕(德)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효에서 비롯함<sup>11)</sup>을 효경(孝經)에서 밝혔다. 또한 효의 시작을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건강하게 잘 보존<sup>12)</sup>하는 것으로도 조명하였다. 논어(論語)에서는 효제(孝弟)야 말로 위인(爲仁)의 근본<sup>13)</sup>이라 하였다. 이렇듯 유교적 실천의 본질인 인(仁)을 실현하는데 효가 뿌리며 근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기독교(基督教)에서도 십계명의 인간에 관한 최초 계명 중에서 최우선으로 “네 부모를 공경(恭敬)하라” 라고 부모에 효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sup>14)</sup>이라고 하였다.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면 장수(長壽)하고 물질적 축복(祝福)도 받을 것임을 약속<sup>15)</sup>할 정도로 효의 실천을 중요시 하였다. 또한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인간에 대한 사랑과 부모 공경의 효를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슬람교 또한 “사람은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함과 더불어 사람에게 의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무는 곧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면서 아울러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시 하고 있다. 그들은 알라에 대한 절대적 믿음 아래 정성이 화목하고 고귀해지며 삶의 지혜가 분출된다고 본다. 더불어 부모에 대한 효를 정의의 차원에서 조명<sup>16)</sup>하고 순종과 효를 동일시하며 평화를 추구함에 이슬람적 효의 본질이 있다.

원불교 정전(正典)에서는 부모에 대한 보은(報恩), 즉 효를 무자력자 보호라고 밝혔고 효를 인간 사회에서의 최우선 덕목으로 삼았다. 또한 부모가 낳아 자력이 없을 때 길러 주고 보호해준은 무한 자비와 사랑의 묘용(妙用)임을 밝혔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보은(報恩)인 효(孝)를 실천하면 세상이 그를 귀하게 알고 자손도 그에게 효성(孝誠)할 것이며 세세생생(世世生生)에 걸쳐서 거래 간에 내가 무자력할 때일지라도 중인(衆人)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만약 부모 배은(背恩) 즉, 불효(不孝)를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배척(排斥)을 받게 되고 자손들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양화(殃禍)를 끼치며 세세생생에 걸쳐서 거래 간에 내가 무자력할 때일지라도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sup>17)</sup>이라며 효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효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소중한 윤리와 도덕으로

11) 『효경(孝經)』, 『開宗明義』: “夫孝 德之本也, 敎之所由生也.”.

12) 『효경(孝經)』, 『開宗明義』: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13) 한덕연, 『복지논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9. p.8.

14) 『구약성경(舊約聖經)』, 『신명기』 제5장 16절.

15) 『신약성경(新約聖經)』, 『에베소서』 제6장 2절과 3절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언약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효(孝)를 강조하고 있다.

16) 『성 구관-의미의 한국어 번역』, 『제31장 루끄만』 13, p.762. 주13-1. 이슬람교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가난한 사람, 고아, 장애인 등 그늘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평화를 중시한다.

17) 『원불교전서(圓佛敎全書)』,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제2절 부모은 p.31.

뿌리내릴 수밖에 없다.

또한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효를 사랑과 자비, 인(仁)과 은혜(恩惠)로 밝힌 데서 효의 본질은 제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효(孝)는 모든 종교에서 종교의 본질로 강조하고 있는 인간 고유의 유전자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효의 본질은 몸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사람됨을 잃지 않고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사회적 생명. 즉 효행의 시작은 몸을 잘 보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노발리스(Novalis)는 “우주에는 단 하나의 신전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몸이다. (There is but one temple in the universe and that is the body of man.)”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 가장 소중하고 효를 실천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고 본다. 모든 종교의 경전에서도 사람의 몸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신체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건강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 Ⅶ. 원불교 경전에서의 사회적 생명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효사상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소태산은 원불교 경전에서의 효사상의 핵심을 부모은을 중심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조명하였다. 또한 소태산은 부모은에서 원불교 효사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부모 피은의 강령, 부모 피은의 조목, 부모 보은의 강령, 부모 보은의 조목, 부모 배은, 부모 보은의 결과, 부모 배은의 결과의 순서로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결국 부모은은 효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강령적으로 본 부모 피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自力)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에 생육(生育)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sup>18)</sup>

18)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31쪽.

사람이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는 탄생은(誕生恩), 양육은(養育恩), 훈육은(訓育恩)으로 분류된다. 또한 부모 피은에 대한 보은의 강령은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모에 대한 피은된 바를 알고 보은의 도리를 무자력자 보호에 귀결시킨 것은 소태산 효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력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은 건강하나 경제적 빈곤에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인 부분은 자력이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력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원불교가 추구하는 효의 방향이다. 소태산은 부모 보은의 조목에서 원불교적 효의 실천 방법론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부모에 보은하여 효를 실천하는 길은 부모 보은 조목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데 있다. 이러한 부모 보은의 조목은 곧 원불교적 효의 실천 조목이라 할 수 있다.

1. 공부의 요도(要道)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2.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涅槃)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sup>19)</sup>

위의 부모 보은의 조목 네 가지는 원불교적 효 실천 방법론이며 그 실천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다.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으라 한 것은 일원상 진리의 신앙과 수행에 원불교적 효실천의 핵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하라 함은 노쇠한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해 주고 더불어 육신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피 주는 것이 효임을 밝혔다. 그러나 육신의 봉양도 중요하지만 특히 마음을 편안히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는 것은 효의 범위를 자신의 부모에만 국한하지 않고 넓게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1> 소태산과 효

19)『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32쪽.

분류	핵심내용	세부내용
효의 실천 주체	보은 불공행	자력자 또는 힘 미치는 사람이면 효의 실천 주체가 되어야 한다.
효의 실천 객체	피은의 대상	무자력자는 모두 힘 미치는 해당 자력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효의 강령	부모 피은의 강령	1.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겠는가? 2. 자력(自力)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3.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는가!
	부모 보은의 강령	무자력할 때에 피은된 도를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sup>20)</sup>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
효실천 방법론	부모 피은의 조목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 <sup>21)</sup> 을 얻게 됨. 2. 모든 사랑을 이에 다 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심. 3.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
	부모 보은의 조목	1. 공부의 요도(要道)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 없이 밟을 것. 2.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涅槃)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같이 기념할 것.
효의 실천 결과	부모 보은의 결과	1.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임. 2. 나의 자손도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임.      3.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거래 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임.
불효의 내용	부모 배은	1. 부모에 대한 피은·보은·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 2.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
불효의 결과	부모 배은의 결과	1.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 2.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양화를 끼칠 것임.      3.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

이는 원불교 효사상이 다른 종교의 효사상과 대별되는 점이다. 육신의 부모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효사상이라 할 수 있다. 무자력자 보호는 원불교적 효사상 실천의 핵심 내용으로 효의 보편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널리 알려져야 할 효실천의 대강령이다.

20) 소태산이 밝힌 효 실천의 주체는 ‘힘 미치는 사람’이다. ‘힘 미치는 사람’이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당한 처지에 따라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 한다고 본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태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한 보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준 것으로 본다. 이렇듯 소태산은 효 실천의 주체를 국한 없이 확장시킨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1) 논자는 여기서의 ‘몸’의 의미가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보며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 할 정도로 소중함을 소태산은 ‘만사 만리의 근본’이라고 밝혔다고 본다. 유교의 『孝經』 제1장에서도 몸과 생명의 소중함을 밝히며 신체발부(身體髮膚), 즉 우리 몸과 생명을 건강히 잘 보존하는 것(不敢毀傷)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였고 기독교의 『聖經』에서도 사람의 몸을 성전(聖殿)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모가 열반 후에 내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 원불교 효사상의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생을 현세에 묶어 놓지 않고 삼세라는 큰 틀에서 상호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영생의 효사상이고 천효(薦孝)의 핵심이다. 천효는 영혼의 무자력자를 구제하여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무한 생명적 효이다. 결론적으로 소태산의 효실천 방법론의 핵심은 무자력자 보호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정리해본다.

첫째, 무자력자 보호는 고정 윤리를 확장 윤리로 폭을 넓혔다. 부모와 자녀, 노인과 아랫사람으로 국한된 윤리를 무자력자 보호라는 소태산 효사상의 핵심 강령인 부모 보은의 강령은 대상에 있어서 고정성을 탈피하여 무한한 대상을 한계 짓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자력자 보호는 수직윤리를 수평윤리, 상호윤리로 현실화시켰다.

예를 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무조건적 공경과 봉양을 초월한 무자력자라하면 나이, 성별 즉,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실천의 윤리가 바로 원불교 효사상이다. 힘 미치는 대로 해야 하는 효는 갓난아기도 효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갓난아기일지라도 해맑은 웃음을 부모에게 선사하여 직장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게 만들어 준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스스로 자식을 대신하여 아팠으면 한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의 제자가 효가 무엇인냐고 묻자 자식이 아플까 걱정하는 것이 효라고 하였다. 셋째, 소태산의 무자력자 보호는 인류 보편의 윤리로 자리잡을 것이다. 무자력자 보호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효이기 때문에 인류 보편의 실천윤리에 힘 미치는 대로 행하는 효의 실천이므로 누구나 다 심지어는 태중의 아이조차도 행할 수 있는 효 개념이다.

효는 부모의 자애와 자녀의 효라는 상관적 관계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효의 본질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베풀<sup>22)</sup>에 있기 때문에 무자력자 보호도 결국은 자력 있는 사람의 자력 없는 사람에 대한 헌신적 베풀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모 피은의 강령을 보더라도 부모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 효도는 당연한 것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태산이 부모은으로 효를 신앙적 차원으로 승화한 것은 효가 없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위상이 설 수 없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며 부모라는 생명 창조자가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절대적 경지를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식하고 보은 불공해야할 당위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논자는 소태산이 밝힌 효사상을 부모은을 중심으로 ‘<표-1>소태산과 효’로 정리하였다.

22) 김용욱, 『효경한글역주』, (서울:통나무, 2009), 157쪽.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 송 규종사(鼎山 宋 奎宗師 : 1900 ~ 1962, 이하 ‘정산’)는 효사상을 원불교 핵심 교리와 연계하여 현실 생활에서의 실천에 무게를 두었다. 특히 정산은 “효의 실행은 부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다.”<sup>23)</sup>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주만유(宇宙萬有)에 충만해 있는 은혜와 효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산은 은혜의 존재인 사인과 효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효라 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하나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오.<sup>24)</sup>

위에서 밝혔듯이 정산은 효의 본질을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소태산은 우주만유의 존재 실현을 은혜의 인식으로 규정하여 보은으로 완결코자 하였다. 여기에 정산은 한국의 전통 사상인 효와 연관지어 원불교적 효를 모든 은혜에 대한 보은행으로 규정하였다. 전통 종교의 효사상에 대하여 원불교의 효사상은 특징이 있다.

정산은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근본이 된다고 하며 부모만을 가장 강조하였다. 그래서 정산은 효의 실행을 부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인의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존재 자체가 은혜로 와 닿는 것을 느끼는 순간 효의 실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인 전체에 대한 보은 상생의 도<sup>25)</sup>를 효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정산의 사상 중 삼동윤리는 원융회통의 효를 주창한다. 동학, 증산, 원불교를 비롯한 한국 신종교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삼교원융’ 또는 ‘삼교합일’ 적 경향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신종교들은 유(儒)·불(佛)·선(仙) 삼교의 장점들을 종합적으로 회통시켜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서로 다른 종교끼리의 회통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통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면연히 이어져 오는 윤리는 효(孝)의 윤리이다. 효는 무교,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을 가릴 것 없이 어느 종교 사상에서나 권장되는 것이다. 효가 역사의 변천과 관계없이 전통

23) 『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 「제6 경의편」 59, 원불교정화사 편, 『원불교전서』, (익산:원불교출판사, 1992), 860-861쪽.

24) 『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 「제6 경의편」 59, 860-861쪽.

25) 정산은 1945년 8·15 광복을 얼마 앞두고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원불교 부산 초량교당에 가서 법당에 “사은상생지 삼보정위소(四恩相生地 三寶定位所. 네 가지 은혜, 즉 사인이 상생(相生)으로 존재하는 땅(세상)이요 그 세상은 불법승 삼보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라는 글을 써 붙이고 기도를 올렸다. 정산은 사은상생지에서 세상의 구조를 사인으로 파악하였고 사인에 대한 보은을 상생의 실현으로 연결하여 세상을 은혜의 연결고리로 인식하였다.

26) 정순일, 「원불교의 3교원융사상」, 『원불교사상 제17,18집』, (익산:원불교사상연구원, 1994), 551쪽.



윤리의 핵이었다<sup>27)</sup>는 점은 종교나 사상간의 이념을 넘어선 윤리적 가치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산의 삼동 윤리에 담겨진 효사상은 원융회통의 중핵적 윤리로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산은 “삼동윤리는 곧 앞으로 세계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大同)의 관계를 밝힌 원리니, 장차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울안에서 벗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기본 강령이니라.”<sup>28)</sup>라고 말했다.

삼동윤리는 협동, 단합, 일치의 윤리로서 동원도리는 모든 종교는 한 근원의 진리에 바탕해 있다는 것이며 동기연계는 한 기운으로 연해 있는 결합체로서 인류 상호간에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한 것이고 동척사업은 모든 사업과 주장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다 같이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인류가 대동화합할 것을 말한다 라고 삼동윤리를 제창하였다. 삼동윤리는 종교의 미래의 진로와 미래 인류의 진로를 밝힌 것으로 인류가 대동화합하자는 대세계주의의 윤리적 강령이다.

이런 점에서 원불교 효사상은 동원도리의 근간인 일원상 진리와 사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종교사상과도 회통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불교 효사상은 시대와 이념, 사상과 종교를 초월하여 원융회통할 수 있는 윤리 체계이다.

정산이 밝혔듯이 효는 본질적으로 은혜에 대한 보은에 있으므로 사요의 중심을 보은에 두었다는 것은 효의 일반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며 효를 존재론적으로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원불교 초기 경전인 『불교정전』에서 보은의 대요를 사요와 대비시킨 본의는 사요의 현실적 보편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 〈표-2〉 정산과 효

분류	핵심내용	세부내용
효의 정의	보은행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
효의 단초	은혜 발견	사운(우주만유)의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것
효의 활용	감사생활 처처감사 (處處感謝)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경계를 오직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림) 감사생활이 효이다.
효의 확대	인도대의	일편적인 효(부모가 자력이 있는 때에도 평생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만 효로 생각하는 것)가 아니다 광대하고 원만하여 천하 고금에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도의 비릇이

27) 박헌묵, 「원불교사상에서 본 충효열」, 『원불교사상 제19집』, (익산:원불교사상연구원, 1995), 398쪽.

28) 『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 「제 13 다운편」34장.

		된다
병든 효	원망심	① 가정에서 부모를 원망 ② 세상에 나오면 천지와 동포와 법물을 원망 ③ 세상공기가 침울하여진다(세상이 각박해짐) ④ 인간 생활이 위험에 처함(위험한 세상) ※ ①, ②의 결과가 ③, ④이다. 원망생활이 병든 효, 불효이다.
효의 실현	보은불공 사사행복 (事事幸福)	① 효의 정신을 진흥한다 ②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불공한다 ③ 모든 인심을 효에 돌아오게 한다 ※ ①, ②, ③은 병든 효를 건강한 효로 치유하는 처방

따라서 사은사요의 존재론적 심화의 측면을 ‘보은 즉 불공’에 두고 있다는 점은 효의 의미를 보편화한다고 볼 수 있다. 첨언하면 정산이 밝힌 원불교 효사상은 보은행의 존재 실현에 있으며 그 실천의 방법은 은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불공으로 귀착된다. 존재자체는 가치로 실현될 때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산이 밝힌 원불교적 효의 가치 실현의 입장에서 ‘〈표-2〉정산과 효’ 29)로 효의 핵심을 정리하였다.

정산이 밝혔듯이 원불교적 효는 진리의 자기 전개 속에서 사은과의 관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일반적으로 사은의 일체세계는 진리의 자기 전개이다. 사은의 범주에는 무한한 진리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때에는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적인 인과적 은혜를 함양하고 있다.

정산은 “마음공부 잘하여 세 세상의 주인되자”고 하면서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경계를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 30)이라 하였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은혜를 알고 비록 수많은 순역경계를 당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언행을 해야 한다. 즉 순역 경계를 통하여 마음이 변화되며 각자의 근기대로 인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 VII. 사회적 효와 사회적 생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효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시한 현대 한국사회의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당위명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천년 역사의 과정에서 이미 사회적 효는 문화적 전통을 넘어 유전자적 전통으로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질 핵심 가치라 본

29) 본 내용의 표는 『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 「제6 경의편」 59, 860-861쪽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30) 『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 「제6 경의편」 59, 860-861쪽.

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효는 통념적으로 부모로부터 비롯된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의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도덕적 요소이자 정신적 지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역사에 있어서 효는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천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효의 뿌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와 함께 계속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효가 사회적 효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는 까닭은 가족제도와 사회제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내 부모를 내가 모시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 또는 국가 위탁기관에서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효가 법제도와 함께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회적 효가 각자의 가정과 그 가정이 속한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천 되어 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효는 국가 주도하에 관련된 법제도(사회복지법, 효행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영유아보육법 등)를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고 있는 공적인 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기 사회복지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사회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복지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선교사들이나 종교지도자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본질을 사회복지분야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와 함께 초창기 한국 사회복지분야에 헌신 하였다. 그런데 제종교의 본질인 효가 다름 아닌 우리의 유산인 효문화와 접맥이 되었고 그것이 종교사회복지(종교사회사업)의 실천 현장에서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 없는 복지가 존재할 수 없듯이 효를 빼놓은 종교도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천주교·성공회·개신교·구세군) 신·구약성서에서의 부모공경 및 사랑과 불교 부모은중경의 부모보은, 유교의 효경, 원불교 정전의 부모은에서 효의 개념이 종교적 본질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종교사회복지사업의 현장에서 그 본질이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지고 우리나라의 효문화 전통과 함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효문화가 유교적 환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에는 누구도 반론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문화 전문대학원대학교를 기독교 종단에서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효가 통종교적인 문화적 유산임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효의 범위도 부모공경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제자사랑가족과 나라사랑·자연사랑·이웃사랑·인류에 대한 봉사와 섬김으로 까지 확장하여 실천<sup>31)</sup>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효는 특정 종교나 기관, 시설의 전유물일 수 없으며 특정분야에 국한된

31) 최성규, 『효실천 210』, 도서출판 성산서원, 2011, pp.6-7.

실천 과제가 아니라 인류사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에서 기쁨과 희망을 심어 주는 물질문명사회의 등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효문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차 한국이 인류 역사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효문화이다. 만약 인류가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제일의 문화는 한국의 효문화이다.”<sup>32)</sup> 이처럼 토인비의 한국의 전통적인 효에 대한 인류문명사적 역할의 강조는 사회적 효에 대한 사회적 가족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시몬느 드 보바르는 노인을 제3의 성이라 칭하면서 멸시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서구의 태도에 대비시켜 한국의 효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효에서 제3의 성을 구제하는 희망<sup>33)</sup>을 가졌다. 사회사업의 원조 격인 서구 유럽의 국가에서조차 소외와 차별의 대상인 노인의 현실 문제를 한국의 효사상으로 해결하려 함에 주목해야 한다. 효(孝)는 사회적 효와 더불어 특정분야와 특정국가 만의 실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효와 사회적 생명의 지속가능성은 코로나19시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다행히도 코로나19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앞서 코로나19의 역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청신호를 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생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 VIII. 나오는 말

생명(生命)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우주보다 귀하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그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을 전 국민의 협조와 함께 모범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긴장을 할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협조한다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더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여 생사를 무릅쓰고 자식을 낳아주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자비를 남김없이 쏟아준다.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32) 경기학연구센터, 『경기도 청소년 효교재, 쌤과 배우는 가족사랑』, 경기문화재단, 2019, p.13.

33) 이규태, 『무엇이 우리를 한국인이게 하는가』, 도서출판이목, 1995, p.63.

노력한다.<sup>34)</sup> 다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생명인, 효(孝)라는 범주에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어왔다.

효(孝)의 사람 된 모습이란 생명(生命)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건강히 챙기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몸은 영혼이 안식하는 성전(聖殿;성스러운 집)이며 만사만리(萬事萬里;모든 일과 이치)의 근본으로서 부모의 일이 주재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며 사는 것이 사회적 생명의 보존이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시대와 사회적 생명(효:孝)”<sup>35)</sup>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회사업) 실천 현장은 예외 없이 사회적 효라는 명제가 항상 살아있어야 하며 그 본질이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사업이 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sup>36)</sup>이라면 사회적 효는 그것이 일회성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효를 실천하는 절대적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생명인 효행은 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흘러가야 할 인류의 가장 필요하고도 아름다운 가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효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 자체가 효를 기반으로 정신적 기틀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 발표를 마친다.

---

34) 조정현, 『원불교 효사상 연구』, 박문사, 2016. pp.46-47.

35)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대사회적 과제를 사회적 생명인 효의 차원에서 시도하였다. 그동안 여러 학술대회(원불교사상연구원, 한국효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미래학회) 등을 통해서 꾸준히 발표하였던 사회복지의 문제 및 효문화에 관련된 자료와 본인의 저서『원불교 효사상 연구』의 관련 내용을 참고로 인용 및 보완, 수정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근자에 사회적 효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자선복지계는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실천이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기류는 개인의 천부인권과 맞춤형 효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며 동학 및 후학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체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6) 한덕연, 『복지요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9. p.21.

# 대학생이 경험하는 상담에서의 변화과정 및 대학상담의 기능과 역할

이정인  
(서울영화초)

## I. 대학상담의 중요성

### 1. 발달적 관점에서의 대학생 시기

- 고등학교의 입시 중심의 일률적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문화적·학업적으로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는 전환기
- 후기 청소년기→초기 성인기: 개인 내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 (Erickson, 1950), 관계 영역에서는 친밀감을 획득하는 시기
- 부모의 영향력에서 처음으로 물리적, 정서적 독립을 함.
- 입시 등의 이유로 미루어 두었던 자기(self)를 탐색해 나가는 시기→자신의 외상 (trauma), 미해결과제에 대면이 가능한 시기
-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에 의한 취업 스트레스,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불안, 압박감(손승연, 이종연, 2017)
- 대학생의 자살사고, 우울, 불안, 분노등과 같은 정서문제, 대인문제, 진로 불안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박미라, 2017; 이동훈, 강선우, 2016)

### 2.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

- 입학식, 졸업식, 신입생 설명회, 학과별 행사 등 공식, 비공식 행사의 취소 혹은 전면 비대면 전환→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음. 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 주된 의사소통이 온라인 매체에 의한 텍스트, 화상 통화 등으로 변경 → 정보수집,

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

- 강의의 비대면 전환운영 → 새로운 형식의 학습환경에의 적응 필요, 자기주도적 학습에서의 어려움, 학업적 부적응 초래(최정현, 2020)
- 각종 아르바이트, 인턴십 활동 등의 중단 → 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 취미, 동아리활동, 여행 등의 기회가 줄어들어 →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의 어려움(송원익 외, 2016)

### 3. 2020-2021년도 대학생의 현황

- 경기연구원(2020)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경기도민 연령대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스트레스	67.9	64.0	68.1	65.7	56.1
불안감	69.6	68.5	69.3	66.1	62.2
정보습득 수준	70.1	59.5	61.8	57.4	57.4
사회적 영향력	72.3	74.0	79.4	74.8	78.4
정부 책임	33.7	28.0	17.2	25.2	33.1

주 : 해당 값은 각 분야별 1순위로 코로나19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중을 의미.  
자료 : 경기연구원(2020),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보습득 수준은 1위이지만, 스트레스, 불안감 또한 높은 수준임.
- 20대의 심리적 어려움의 수준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음.
- 사회적 지지체계(가족, 학과 교수, 동기, 선후배, 동아리)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경험할 수 있음.

## II. 대학상담의 기능과 역할

### 1. 대학상담이란?

- 대학상담이란? 대학생의 역량강화 및 심리지원을 위하여 대학학생상담기관을 설립, 운영함.

- 국내의 대학상담 역사

① 1962년 국립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설치령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현재 대학생활문화원의 전신인 '학생지도연구소'가 최초로 설립.

② 이후 국내에서는 1969년 문교부의 사립대학 학생지도 연구소 설치 권장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학에 상담 관련 기관이 설치 및 운영됨.

- 대학학생상담기관의 주요 활동

① 상담,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심리검사, 학생 이해를 위한 재학생 및 신입생 실태조사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상담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학생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기능을 함(김동일, 2018)

- 운영형태 및 이점

① 무료 혹은 소정의 상담비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가능, 학내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함

②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 교육, 심리적 위기 상황의 진단과 신속한 대처 등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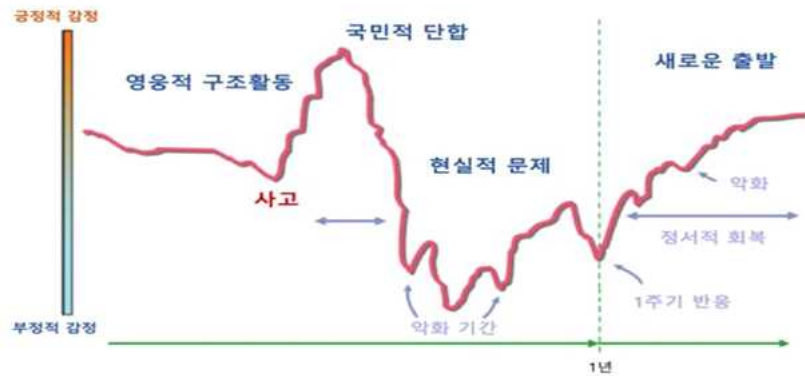
## 2.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대학상담의 기능과 역할

-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위기개입, 상황에 대한 디브리핑, 심리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교 차원의 상담적 접근이 중요함(김동일 외, 2015)

- 코로나19상황에서의 상담 경험이 대학생들의 감정에 대한 긍정적 해소와 인식에 영향을 미침(노성동, 2020).



### <재난으로 인한 집단의 정서적 반응>



자료 : 재난 이후 집단의 정서적 대응([https://www.youtube.com/watch?v=w0A2C\\_Jl7SI](https://www.youtube.com/watch?v=w0A2C_Jl7SI))

- 미국의 서부 사립대학의 비대면 상담운영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상담기관의 예약률은 감소하였으나 출석률에 영향 미치지 않음. (Erekson et al., 2020)
-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군집(학사경고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경제적 취약군 등)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학생들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야 함. (비대면 강의에 대한 적응, 취업 및 학업에 대한 대안마련,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적응 등)
- 코로나19 과정에서 발현된 심리적 어려움/취약성을 회복하고 지지하는 과정이 필요함. (대학상담의 필요성)

## Ⅲ. 대학생이 경험하는 상담에서의 변화과정

### 1. 연구의 목적

- 신체적 가정폭력을 공통으로 경험한 대학생이 상담에서 외상 경험을 개방하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 변화하여 나가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정폭력 외상 경험 대학생의 상담적 개입에 필요한 심도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2. 연구문제

- 1) 신체적 가정폭력 외상경험 대학생 내담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2) 신체적 가정폭력 외상경험 대학생은 상담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를 경험하는가?

3) 신체적 가정폭력 외상 경험 대학생의 상담 내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의 가정폭력 외상의 특성

##### ① 외상의 주요 증상

- 침습적 기억, 악몽,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
- 정서인식의 문제, 공격성과 분노, 우울, 감정표현 불능, 불안 등의 정서적 증상
- 규칙위반, 공격성, 약물중독 등의 외현화 행동 문제

② 가정폭력 외상의 특성: 장기간에 걸쳐 중복되기에 그 부정적 효과가 증가함

③ 국내 가족주의로 인해 가족이 곧 개인의 정체성(identity)

④ 외상: 외상의 특성+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사건과 개인의 관계성 등 고려

#### 2) 외상 관련 상담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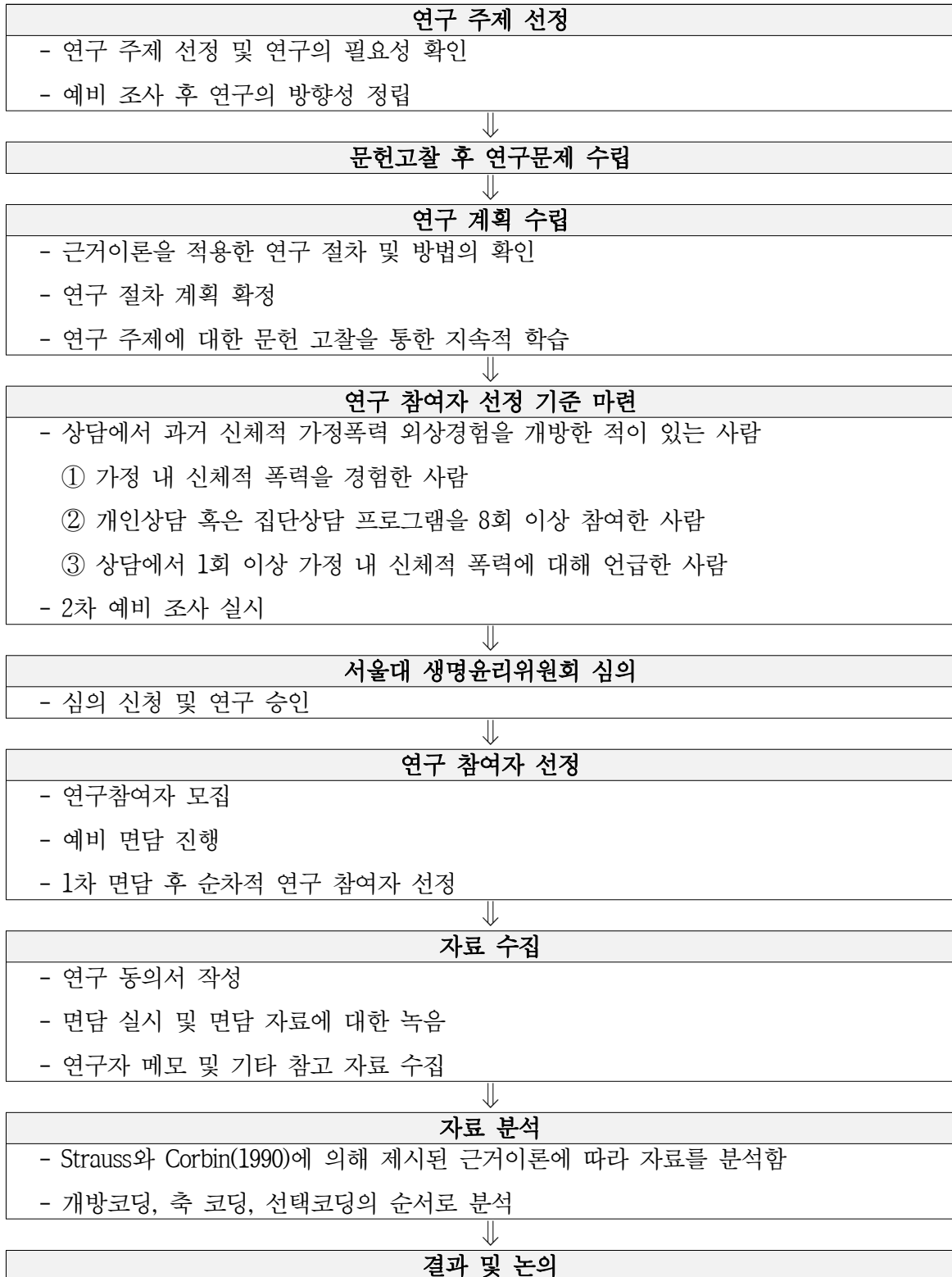
##### ① 외상 기억에 대한 개방과 진정성의 경험

- 외상경험에 대해 개방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Ahrens et al., 2009)
-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불안 유발 경험에 대한 직면, 공포 유발 경험의 직면, 우울 또는 불안과 같은 미분화된 감정의 명료화 등의 기능을 상담에서 수행함.

##### ②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

- 외상경험자에게는 주변인과의 관계 경험(김동일 외, 2015; Brewin et al., 2000), 관계의 질(송리라, 이민아, 2016)이 주요 긍정 변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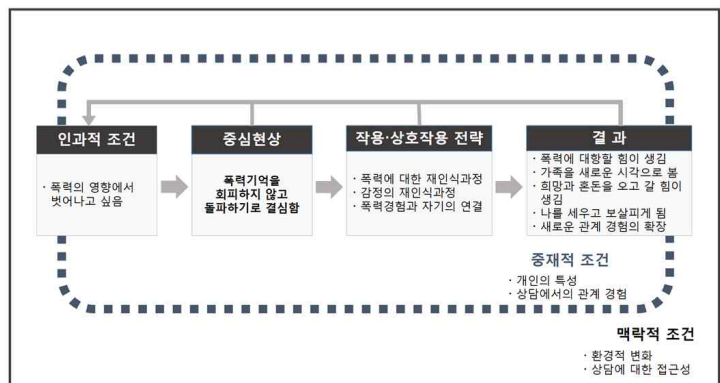
#### 4)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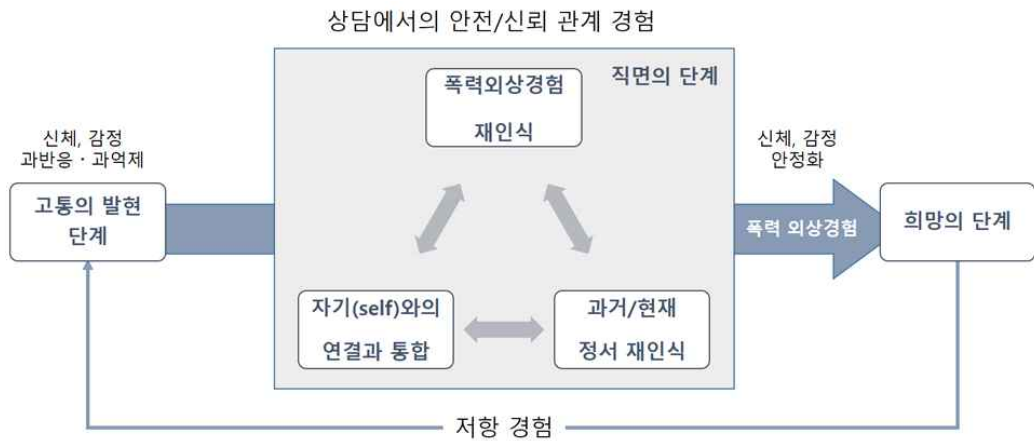
-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학생 내담자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제시,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학생 내담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추출
- 연구의 타당성 평가

5) 연구결과

-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상담경험
- 자료의 범주화 결과



- 과정분석: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학생 내담자의 변화과정 단계모형



IV. 향후 대학상담에 대한 제언

- 1) 대학상담에서의 종교적 역할

- 개인 내적 회복력, 건강한 자기상 형성
- 상담에 자발적, 긍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최적의 시기
- 언어적 기법, 비언어적 기법(명상 기반 상담) 등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
- 마음의 원리를 알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 자기에 대한 효능감, 삶에 대한 태도(가치관) 재형성 등 긍정적 영향

## 2) 대학 적응 및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은 대학생의 학교 만족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높임.
-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발적 봉사동아리,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였을 때, 학교 전반의 문화 형성
- 대학생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로 확산됨.